

사설

학생회 일상사업과 학생운동

최근 학생회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일상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이러한 일상사업에 대해 학원 각주체는 일단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대중추수주의'라거나 '학생운동의 영역을 소급시키려는 경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운동의 위기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몇몇 대학의 총학생회는 '학교가꾸기' 차원의 대중운동을 본격적으로 표현화시켰고 이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올해는 총학생회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학생회, 학생자치기구의 다양한 대중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언론의 경우도 대중신문 창출의 모색을 지나 그것을 지원하고 독자들에게 검증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생운동이 변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더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들은 아직도 많고 사설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학생운동 대중사업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거지사업'의 전개이다. 이러한 근거지 사업은 먼저 학생운동이 모든 변혁운동의 선두적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 규정을 수정, 학생운동역시 남한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운동으로서 시대에 복응해야 한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일부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 시민운동보다 더 낮은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는 우연항적 경향이 변화하는 학생운동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의 변화하는 방향에는 우연항적일 것이라 하더라도 단계를 이룬다고 사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차원의 학교 제모습가나 ○가꾸기 운동을 우연항적이라거나 대중추수주의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발생이나 전개과정이 민주적이며 학생들의 자주적 요구와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 이후 학생운동 변화에 한다면 당위성은 주변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관계, 내부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한 데서 출발했다. 관성적인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 비민주적 의사수렴구조, 관에 막힌 일상사업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는 고양됐던 게 사실이고 이러한 변화된 학생들의 요구를 보장할 수 없었던 학생회 내적관계와 문제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양한 일상사업은 그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반증도 가능하다. 지난10일 사범대학 학생회 '학원 제모습가' 운동의 아침은 학원 제모습가에게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먼저 세련된 지배전략에 맞설 수 있는 사상운동의 강화, 학문공동체로서의 학원 내 단련하는 '신세대'라고 할,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향들의 퇴치운동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이러한 일상사업이 변혁운동의 한 형태로서 '운동적' 관점을 전지하고 있으나도 우려의 대상이 된다.

근거지사업의 핵심은 내가 학원의 주인이고 나아가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비록 운동의 영역은 좁아지면서 구체화됐지만 이와 병행하는 사상운동은 더 넓어지면서 포괄적인 것이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최근 일련의 일상사업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운동임을 명심하고 '운동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고 교육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듯이,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통하여 국가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 내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Harbison과 Myers의 연구 그리고 Schultz와 Dennison의 실증적 연구결과가 보듯이 훨씬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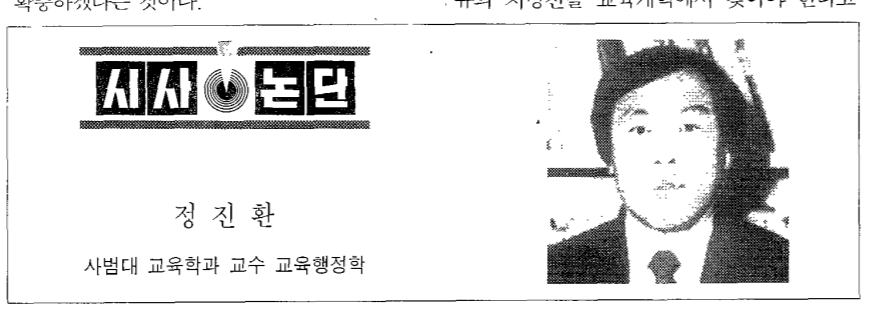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지 동서고금 특히 현대의 국가들은 경력이 바뀔 때마다 교육발전은 권력창출을 위한 절대적 정책대안의 하나로 대변되어 왔다. 그리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왔고, 그 교육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다면적이면서 교육과 풍성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교육의 직·간접 수혜자인 유권자의 환심을 유도하여 왔다고 하겠다.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1998년 까지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며, 1995년 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 과학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인정제를 조기에 정착 시키고, 시간강사료 및 교수연구비등을 대폭 인상하며, 기초 과학분야의 연구비증액은 물론 석·박사과정생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학의 과정은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교육공약만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내에 해결만 된다면 야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교육계의 희망이라 하겠다. 실제로 그렇기만 된다면 교육계는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맞게 되는 셈이라 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형 치유의 처방전을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정진환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행정직

과감한 투자만이 개혁안 실현 가능

새정부 교육정책 전망

이전에 출범한 우리의 새정부도 과거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입시지옥의 해소와 인간중심 교육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과 같은 7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1)전 교과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2)생활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고, 3)국제화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1998년 까지 전문대학의 정원을 9만명이나 더 증원함과 동시에, 2)산업계 근로자의 특별전형비율을 50%로 확대하여 대학학원의 욕구를 산업 및 기술교육분야로 흡수토록하며, 3)대학입학 내신성적의 비중을 격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1)사학진흥기금의 규모 확충, 2)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강화, 3)사학과 국·공립간 협력 차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8년까지 교육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충하여 일약한 교육

여섯째 평생교육체계의 확대 및 생활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1)개발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중층 또는 확대, 2)특학학위 취득기회의 확대, 3)지역단위 사회교육시설의 강화, 4)10개 지역에 종합사회교육원의 설치 등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1)교원주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확대, 2)교원의 해외 연수 확대, 3)교육행정직에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 4)공사립간 교원교류 확대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 이외에도 대소경중(大小輕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해결되어야 할 교육개혁

적절한 점을 상기에 불태, 새정부에 거는 교육계의 전망은 밝기만 하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서울 이천국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운 교육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며 교육계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선진국들마저도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발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상 이를 새정부에서 통감하고 있음은 교육계의 입

최근 대학별고사(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94학년도 새입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신문에서 본고사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돼 관심을 끌었다.

현재 수능능력고사와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발표한 학교가 전국 98개 대학이고 수능능력고사, 내신성적과 함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34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고사를 보는 학교도 과목당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과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별고사 과목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1과목만 치르는 대학은 6개고, 2과목을 치르는 대학은 14개고, 3과목을 치르는 대학은 17개고, 4과목이상 치르는 학교는 서울대 한 군데 뿐이다. 본고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학별고사 출제연구위원회(위원장:정병조 교수차장·국민윤리학)가 구성돼 활동중이며 1월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특채정원은 20%정도로 하고 선택과목수도 줄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어 수학은 대체로 서술형 주관식 위주로, 국어의 경우 사고와 논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제를 수학적 경우 수학적 중심으로

예설 94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본고, 출제경향 연구중... 본고사 고수할 듯
피상적 출제경향으로 수험생 '이중고'

변별력과 사고력 측정을 위주로 한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고했다.

정병조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문제의 변별성을 키우기 위해 고교 내 신1등급인 학생이 70%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 이의 검증을 위해 등대부고, 명성여고등 본고 부속학교를 이용해 3차 정도 모의 고사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대학자율권 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오선 대학별고사를 착안없이 치뤄 15년전에 사라진 본고사에 대한 경험을 다시 쌓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과목당 4~5시간의 들어가는 경비절감과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별고사 과목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합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고려대와 함께 연구중이다.

태리학의 대학별고사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객관식 문에 의지한 수험생들이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주 객관식을 혼합 출제해줘 지원되는 수험생의 수준을 고려해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국어(논술)를 제외하고는 단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제2외국어와 과학의 경우는 일부 4지선다형이나 0.5점의 객관식문제로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어(논술)는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40% △주어진 글의 요약 30%

게 어려운 문제를 피할것이라고 밝혔다.

수학은 교과서내의 정리, 증명문제를 위주로 전반에 걸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출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이미 2차례의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주·객관식 문항의 비율을 50:50정도로 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출제경향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외의 대학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제경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입시요강이 확정·발표되는 오는 9월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학들의 추상적 출제기준으로 인해 입선교사들과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험생들의 대학선택 및 이를 위한 집중적인 학습을 위해 조속한 출제유형의 공개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학이 늘어가고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도 그과목을 줄이려는 추세와 함께 일부대학의 추상적 출제유형 발표등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위해서는 본고를 포함한 각대학들의 입시요강과 출제유형의 확정 발표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기자)

초대만평 최경인

저... 저... 무서운 학생!

이거요? 평화유지용이예요...

EXPO'93공식수류공급업체

EXPO vs 엑스포

1893년.사카고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유치된 제 13차 엑스포 대회 참가국 명단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해 5월 3일, 83개 2만9천 파운드가 하역되었다는 바퀴벌레 보고서 기록으로 보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임이 지나는 의외는 자못 컸습니다. 엑스포 최초 참가라는 의미외에도 오랜 왜곡정치를 청산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의 대문을 열려는 다각적 시도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 여덟년간과임으로 꾸며진 당시 한국관에 관부·도자기·모시·부채·갈옷·가바 등이 전시되어, 함께 파견된 10명의 국악사들이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더불어 전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카고의 코리아 선풍'은 나라 안으로는 구한말 고종황제 30년 때의 일이었습니.

1893년.서울 세번 고사서 燒酎, 이슬처럼 받아내 露酒, 정기를 높여준다 하여 氣酒라고 별칭되던 소주가 마포·동막·공덕리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양조장은 대략 100여호 정도, 제조 보급량이야 지금과 견줄 바가 못되었지만 당시 항간에서 '南酒北餅'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목석산(지금의 남산) 남쪽면 이 지역에서 빚어지는 소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물과 같고 그 맛은 진하고 강렬하다"고 묘사한 옛 문헌만 보아도 당시 소주의 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주를 사시사절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듯, 이른 봄부터 마른해둔 주정을 발효시켜 두었다가 5월이나 되어서야 빚기 시작했고 10월 무렵이 되면 그나마도 한해 마무리를 해야 했던 탓에 소주는 "春秋佳節에 매하는 귀한 술"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1993년.대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코리아'가 처음으로 참가한 사카고 대회부터 꼭 100년만의 패자/축제 마당은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한 한반 대(大)으로, 유서깊은 많은 문화유적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인 대전연구단지가 함께 하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과학의 멋진 어우러짐이 펼쳐지는 가운데 20세기를 걸산하고 21세기의 포문을 여는 지구촌의 대축제-93대전 엑스포/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이 세계의 동과 서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만나는 장이었다면, 대전엑스포는 세계의 남북, 북·이, 그 경제적 거리를 뛰어넘어 균형있는 발전 속에서 새물결도 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전 EXPO를 기념하고 우리 술의 국제화를 위해 진로가 새로운 감각의 우리 술을 선보입니다. '세계의 함께 나아가는'의 새 시대 新 감각에 어울리는 우리 술'을 개발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선두주자로서의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현대 모아 마침내 眞露가 탄생시킨 新 소주-「진로엑스포」최상의 일꾼만을 엄선해 자운 발효시킨 찰주정이 걸기되어 그 향이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찰민어과처럼로 한 번 더 걸리면서 맑고 투명한 소주 특유의 깨끗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마신 뒤 속취가 남지 않아 뒷날 또한 깔끔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즐기고 깨끗하게 취하는 바로 이 소주-「진로엑스포」 21세기로 향하는 우리의 깨끗한 선택입니다.

株式会社 眞露

진로엑스포는 EXPO'93을 기념하고 소주의 국제화를 위하여 소주의 국제화를 위하여 소주의 국제화... (repeated text)

진로엑스포

1924 1955 1967 1979 1989 1992

태백 화전동 탄광촌을 가다

“석탄개발 아니면 살길이 없지”

눈덮인 낮은 지붕들아래 빼빼로 창문만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태백시 화전동.

눈덮인 화전동을 처음 찾는 사람들아래면 낭만적인 겨울풍경을 떠올릴지 모르다 그러나 눈아래 펼쳐진 실상은 지하 막장만큼이나 어둡기만 하다.

한집걸러 다섯집정도 비어있는 '탄광촌사택' (일명 새마을사택)은 주인없는 개들만이 지키고 있고 조금 떨어져 지은지 3년째 접어드는 아파트사택마저 12층만 사람이 살 뿐 3층은 비어있는채 30년의 차이를 두고 공존하고 있다.

제다가 어두워지면 빈사택들은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바뀌어 합부로 지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장성동, 철암동, 소도동등 이제는 태백시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 81년 황지, 장성, 철암 3곳의 읍을 하나로 모아 시로 승격시킨 도시다 태백시의 인구는 석탄산업이 최고 호경기였던 87년의 12만2백여명에서 계속 줄어 91년에는 8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탄광협회 업무통계자료).

“일찌감치 떠나야 했다 다 늙어서 다른 일자리도 마땅찮고... 그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늘 가지고 있지.” 이십여년을 막장에서 보낸 예순살 광부이자씨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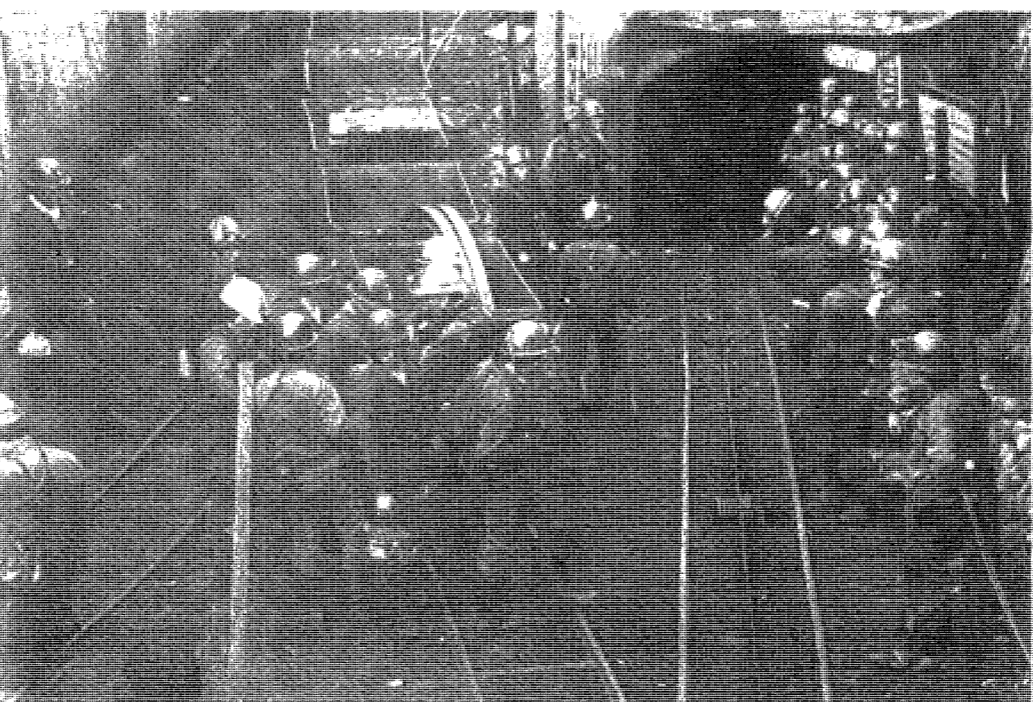
무엇이 이들을 하여금 탄광촌을 떠나게 만드는가. 그 해답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압박 △환경오염등을 들어 정부 축 입장을 설명한다.

실제로 합리화정책 이후 87년까지 3백63개였던 탄광수는 89년 이후 지난 해까지 2백73개 탄광이 폐광됐다. 폐광으로 인한 해역근로자 지원책은 퇴직금, 실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이사와 및 구직활동비등이 있으며 탄광촌을 떠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1~3년간 2인 자녀 학자금이 지급된다.

막장생활을 거쳐 광부로서 민중당 공천을 받아 91년 강원도원이 된 성희석(36세)씨는 이에대해 "80년대 이후 석탄의 지속적 소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도로·용수·재정문제 해결없이 당장에 이익없고 풀치어라고 없앤다는 식의 발언이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한다.

“산업역군이러며 부추길엔 인제고 지원금이다 위로금이다 허울만 좋지 전세방하나 못 얻는 5백여만원 권어 주고 나가라니...” 태백시 한남탄광이 폐광되어 일자리를 잃은 한 광부의 탄식이다.



◀마치 군인같은 복장에 장화, 캠프를 착용한 막장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감이 지른다.

광산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재해 실태

“제 생활에 대해, 제 병에 대해 크게 할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장성별원 3층에 자리한 별실 한구석에 웅크려 누워있는 진폐증 환자 장수만(53세)씨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담담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도 몇개 환자자 죽는 바람에 비게 된 옆 침대는 눈길도 돌린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고향 흥천을 떠나 한강 경기중년 태백의 광산노동자로 들어와 자기등에 사고로 죽은 동료의 송장을 업어 내리며 조금더 조금더 하는 심정으로 버틴 그에게 광부생활 18년만에 돌아온것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결핵, 청춘을 지하막장에서 보낸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8년제인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

이제 막바지길로 접어든 광산업의 뒷면에선 광산재해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탄광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해는 진폐증이다. 고교 졸업후 10년째 경동탄광에서

부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폐광대책 비 지급규정'에 의해 폐광된 광들이 근로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낸 경우이다. 탄을 캐는 것이 아니면 살길이 없다는 그들에게 동의하게끔 한것은 무엇인가.

93년 3월까지 폐광신청을 안하는 광산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2차 합리화 정책은 석탄 소비감소로 인한 재정악화에 놓여있

는 광산사업주로 하여금 폐광을 이 골계해 몇달분의 임금을 주지않아 자라니 살기 힘들어지는 광산노동자들에게 동의하게끔 만든다. “어쩔수가 없지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돈 몇푼이라도 받으려면 동의하는 수밖에요” 한 광부의 말은 폐광노동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부 작업안정과 직원 박세만(34세)씨는 “전산망을 통해 알선해주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를 없습니다”라고 말을 흐린다. 실상 직업훈련도 없거니와 직업훈련을 받는동안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비경제적인 탄광의 폐광을 지원하고 장기적 가행이 기대되는 탄광을 육성함으로써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시책이래 지난 88년부터 착수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배경에 대해 동력자원부 김훈기(35세)씨는 “스무여년 소비감소 △석탄의 가격경쟁력 상실 △연간 2천여 상방의 정부지원으로 인한

새정부의 한편 지난 2월24일 동력 자원부를 폐지함으로써 탄광촌 현 상태유지 정책까지 시행할 뜻이 없을 비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2차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은 연간 30만톤 이상의 석탄광이라도 노사합의하에 폐광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석탄개발 아니면 살길이 없지” 탄광촌의 사할길을 예시하는 한 광

동막로

개강을 한 뒤 동막은 또다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다.

매년 이맘때면 그렇듯이 신입생 환영대자보나 동아리 홍보물로 홍수를 이룬다.

덕분에 동아의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아저씨. 아주머니들은 허리가 된다.

아침 7시엔 출근해 퇴근하는 오후 5시30분까지 끊임없이 시기가 지난 홍보물이 바닥에 붙여져 찢긴 대자보들을 제거하느라 눈코뜰새 없기 때문이다.

동막로 주변의 바닥 대자보를 정리하던 나이이드신 용역아저씨는 “보라고 붙인건지, 때라고 붙인건지 모르겠다”며 짙은 내 굵은 허리를 편다.

용역사무실(다량관 지하2층)의 한 판계자는 “요즘 같이서는 50명

의 용역 노동자들이 야간작업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일의 부담을 토로한다.

“요즘은 난지도 쓰레기하치장이 폐쇄돼 일단 중구청 근처의 중간하치장에 내다버리고 있지만 그것도

소박한 바람



쉽지는 않다며 쓰레기 양은 늘고 처리는 힘든 상태'라고 말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하루평균 쓰레기 2테반 분량의 쓰레기가 쏟아

져 예술대 건물(옛 재향군인회관) 주변의 쓰레기장에 쌓여놓고 있어 학내미관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술대 주변의 쓰레기 더미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처리방법이 관련해 여별 줄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용역사무실 관계자는 당부한다.

도움이라면 벽보붙이는데 게시 판 이용을 생활화하고 한곳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여러장 붙이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제는 자기가 붙인 대자보는 자기가 떼달라는 부탁까지 못하겠다. 그저 1장씩만 붙여야 하는데 수고스러움만 좀 덜었으면 한다”고 한 용역아저씨는 소박한 바람을 전한다.

학생회마다의 동양정소하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용역아저씨들의 굳은 허리와 주름살을 활짝 펼 수 있게 하던 얼마나 좋을까

(박수로 기자)

어려운 생활고에 진폐증까지 현실 직시한 정부대책 마련 시급

노동부가 집계한 재취업 희망자는 전체 폐광노동자의 42.5%지만 진폐증, 낙반사고 등으로 취업에 적절한 사람은 10.5%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이 박노동을 하거나 도시민들의 길을 걷게된다.

임하고 있는 한주희(30)씨는 말한 다. “날짐승을 새장에 가둬두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도와 압력이 높아 작은 하나에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돌연지와 탄가루는 정말 심각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돼요”라며 입을 다문다.

국내 유일무이한 에너지원으로 60년 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를 일으킨 석탄산업은 정부의

진폐증은 미세한 탄가루나 돌가루가 폐세포에 달라붙어 폐를 굳게 만든다는 병으로 호흡곤란, 산소부족등으로 폐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는 불치의 병이다. 일단 진폐증에 걸리면 폐결핵, 결핵성 흉막염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걸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분진의 종류에 따라 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등 약 30종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중 탄광재해는 지난 90년 조사기준 전체의 8.7%를 기록,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환경과 높은 노동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를 돌보고 사택이로 돌아오면 이틀 정도만 그제사야 할 고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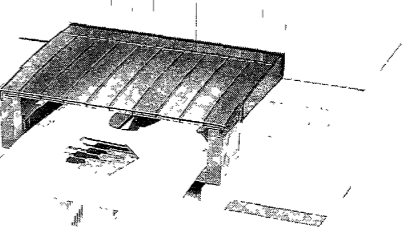
블랙에 생명을, 칼라로 액센트 -

이젠, 칼라액센트로 설득하십시오.

상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칼라액센트. /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서류작성도 마찬가지 - 중요한 부분엔 칼라로 액센트를. / 흑백서류에 칼라로 생명을. / 새로운 HP 칼라 잉크젯 프린터 - 데스크젯 505K 당신을 설득의 실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놀랍다. / 칼라이면서 가격은 모노 -

HP데스크젯 505K는 흑백서류에 원하는 칼라를 지원해주시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도트프린터 수준, 또한 놀라운 것은 폭넓은 호환성에 한글·한자에서 칼라그래픽까지 레이저급 출력을 자랑한다는 사실, Fortune가 선정한 No.1 컴퓨터전문회사, 휴렛팩커드의 앞선기술이 만든 데스크젯 505K - 3년간의 무상보증으로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새로운 HP칼라잉크젯 프린터 - 데스크젯 505K

*당사 고가품의대신 HP 데스크젯에 관한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080-023-2323(수신자부담)

자연과학관 자연대 전학과 수용여부 쟁점화

무계획한 학과신설... 잦은 계획변경 원인 첨단실습 기자재 갖춘 전용건물 필요

자연과학관 완공일을 4개월 앞둔 현재 경주캠퍼스에서는 자연대 9개 학과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연대 학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자연과학관 완공 이후 활용 방도와, 과학화 상태인 경주캠퍼스 각 건물에 대한 인식의 새 틀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진척률 70%인 자연과학관은 착공시 설계도면의 변경과 각종 배치가 이루어져 따라 각 학과 운영 배치의 어려움에 부딪혀 이번 공사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설계도면 변경에 대해 관계자의 한 관계자는 "시공도면에서 각 실험실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배기후도시설 등이 누락 돼 설계변경되었고 이전일은 공사과정상 흔한 일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의 자재가 실험실습이 주로 이뤄지는 자연과학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험실 실시실이 설계도면상에서 누락 되었다는 점은 "공사과정상 흔한 일"이라는 말로 쉽게 넘겨 줄 수 없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도면상의 착오는 자연과학관 공사를 4개월가량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사과정상의 문제점보다, 학교 측과 각 학과 교수 및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쟁점화 되는 사안은 자연대 전학과의 수용여부와 그에 따른 운영상태에 있다. 이 부분은 공사진행과정에서 여러번 수정 된 바 있다.

자연대 학생회(회장 박용주·수교4) 측은 이에 대해 "각 학과 운영상태에 대한 도면이 수시로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정작업이 이뤄져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런 태도를 보아 학교측이 자연과학관 완공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런 학내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일 총장실에서는 자연대 각 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학관 운영 방침계획 설명회 및 각 학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석회의가 기초과학센터 2주최로 열렸다.

이런 학내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일 총장실에서는 자연대 각 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학관 운영 방침계획 설명회 및 각 학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석회의가 기초과학센터 2주최로 열렸다.

◇경주 자연과학관 운영방침

층	수용학과	운영계획방침
1층	생화학 산업안전공과	안전관리(실) · 기계안전(실) · 화공안전(실) · 전기안전(실) · 효소실험(실) · 특수생화학(실) · 일반생화학(실) · 과학관사무실 · 강의실1개 · 연구실8개
2층	화학 기공교육과	일반화학(실) · 물리화학(실) · 정량화학(실) · 무기화학(실) · 유기화학(실) · 공용(실) · 저온실 · 기공과실습실 · 강의실1개 · 연구실5개
3층	생물학과	일반물리화학(실) · 일반생물학(실) · 미생물학(실) · 식물생리생태(실) · 세포생화학(실) · 분류형태학(실) · 식물표본실 · 동물표본실 · 조직배양실 · 강의실2개 · 연구실6개
4층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전자계산 전산통계학과실습실 4개 · 수학교육과 자료실1개 · 강의실4개 연구실11개
5층	조정학과	조정학과실습실3개 · 강의실3개 · 학생회실

위도표는 지난 11일 학교측에서 발표한 도면에 의해 작성 최종확정일치 아니-리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 (실)·실험실

실명했다. 또한 실습실 1개만을 배치 받은 기공교육과의 경우 자연과학관 완공 이후에는 진흥관 강의와 함께 자연대 건물에서 강의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공간 부족사태의 원인은 학교 측이 애초 자연과학관을 '자연과학관'의 위치 보다 '기초과학관'이라는 입장에서 이번 공사를 구상한 데 있으며, 무계획적인 신설학과 증원에서 기인한다. 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번에 걸쳐 변경된 수정운영도면이다.

11일 운영방침계획 회의 이전 도면에 의하면 1,2,3층을 기초과학 분야에 실습실습실이 설치된 것 외에는

4,5층을 예비실로 남겨 두어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조정학과, 수학교육과, 기공교육과 등 5개학과는 도면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4,5층 예비실 공간에 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자연대 첨단학과 신설을 위해 4,5층을 예비실로 남겨 두었던 것인데, 전산통계학과와 다른 신설학과들이 교육부로부터 허가되지 않아 더 이상 예비실로 남겨 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으로 4,5층 빈공간과 다른공간에 5개학과를 추가수용하는데에는 지금의 자연과학관 절대



◇자연과학관의 공사진척률이 현재 70%에 이르고 있다

공간으로는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과학관은 지난 88년 학원자주화 노력의 한 성과물이다. 학교측이 노천강당 건립비용 2천만원을 양보함으로써 89년 12월 기공조성에서 확정되어 착공에는 '부지이전' '재설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91년 9월에서야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기간은 총 22개월이 소요됐지만 사실상 자연과학관이 완공되기 위해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긴 시간속에서 완공될 자연과학관의 의미는 원효관, 진흥관, 도서관 등에 각각 흩어진 자연대 모든학과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청산하는 동시에 공간이상 예비실로 남겨 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으로 4,5층 빈공간과 다른공간에 5개학과를 추가수용하는데에는 지금의 자연과학관 절대

(김태성 기자)

올해 직원 노조 단체협약(안)

올해도 직원노조임금협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과 학교측의 임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단지 임금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단체협약을 통한 직장에 권리신장, 신분보장과 직장의 민주화등의 방향이 협상의 중심이 되고있다. 좀더 전반적인 추세로 나아가 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올해 임금협상은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도 결성되어 통일된 방향으로의 사업이 갈리고 있다.



◇어제(16일) 오후2시 교무위원회실에서 1차 단체협상이 있었다

장문(관계자)도 93년도 임금협정(안)을 확정할 상태이다.

△기본급 10.5%인상(사무직) △상여금 1백%인상(공통) △기능직은 별도로 등급별 직무수명제 시행 △기능직의 호봉급 정액 4만원 인상

이런 실질적인 내용정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의 본인토론회와 8,9일 양일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16일) 7일 이내에 재제조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것 △업무상 입은 과태의 처리는 전액을 부담하고 적절히 위로금 지급 △업무상 일은 병으로 강해 계속 남을 경우 별도의 가산보상금 지급등이다.

하지만 노조측이 제시하는 안의 근거가 부족한 데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어 추상적인 것이지만, 인사문제나 신분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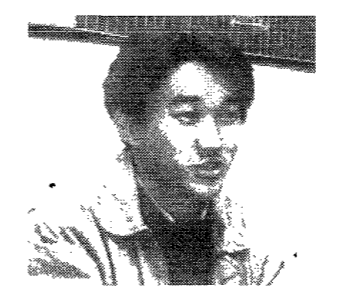
2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면한 과제는 투쟁의 명분을 분명히 하여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섭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7일 이내에 재제조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것 △업무상 입은 과태의 처리는 전액을 부담하고 적절히 위로금 지급 △업무상 일은 병으로 강해 계속 남을 경우 별도의 가산보상금 지급등이다.

하지만 노조측이 제시하는 안의 근거가 부족한 데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어 추상적인 것이지만, 인사문제나 신분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면한 과제는 투쟁의 명분을 분명히 하여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섭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야간강좌 교과위원장 전동선 군을 만나



신입생위해 교양강좌 자료집 발간 "수강신청 근거미흡 아쉬워"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있었던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장소로 인해 당황했을 것이다.

수강신청정정 불가, 사유서 제출 등 학교당국의 일련의 조치가 수강신청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한해 이후이후였다.

이러한 학교측의 수강신청에 따른 근거제시의 부재속에 야간강좌 교과과정위원회(위원장-전동선·야간회계3)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야간강좌 교양과정 강의소개 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전동선 위원장을 만나 교양강좌 강의소개 자료집의 발간에 대해 들어본다.

-교양강좌 강의소개 자료집을 발간하기엔 배경은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교학과 직원이 나와 지도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교양과정 선택시 학점잘고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강좌만을 무턱대고 선택하는 경향을 좀 바꿔보고자 했다.

이에 부수적으로 수강정정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자료집 발간의 의미는
=양적인 한계로 신입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교양과정의 기본적소개로 이후 자료집발간의 기초가 됐으며 수강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수강신청정정 폐지에 관해서는
=학교측은 행정상의 번거러움으로 폐지하려고하나 수강신청시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해 줄으로써 수강신청 요인을 제거해준다는 점이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교자료의 자료집 발간 필요성은
=모든강좌에서 수강정정 폐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특히 교양강좌의 경우 강좌수가 많아 근거있는 수강정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무과의 역할

(이석중 기자)

분임토의·설문조사 거쳐 협약안 제시 임금보다 직장민주화 강조

최금 노조조합들의 조합원들의 중심은 이젠 임금협약문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직장내 민주적 토대구축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생취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 강화 △대학운영에의 참여 확대(대학노조의 존재여부를 강화시켜주는 근거) △직원의 행정진 보장 △내실있는 생활향상(인사문제, 포함한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섭을 통한 단결력 배양(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분리교섭)

이제까지의 주요이슈는 △노조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제도 확립 △기능직 임금제도 개선 통한 장기근무자 생계 보장 △상여금 정제로 인한 생활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93년도 단체협약(안)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대학발전 및 운영참여-행정업무에 대한 개선, 보고서 발간등 필요 경비 조합에 지원 △중장년층 직원들의 참여 보장하는 민주적 인 제도 마련 △산업안전 보건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안전과 보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유지 △업무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조사를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공고

향년법 제6조에 의거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 1 교육대상 본고 예비군 전원(교직원 및 재학생 학·석·박사과정)
- 2 교육대상 제외자
 - 가 93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나 93년 1월 1일 이후 동원훈련을 필한 자
 - 다 86년 12월 31일 이전(전역 7년 이상)에 전역한 일반해사, 병 보충역에 해당되는 자
 - 라 83년 12월 31일 이전(전역 8년 이상)에 전역한 장기해사 이상 간부에 해당되는 자
 - 마 미필 보충역...
- 3 대학별 교육일정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경 상 대	4 9(금) 본고	이 부 대	4 12(월) 본고
중 . 과 대	4 20(화) 219연대	불교, 예술대	4 21(수) 219연대
법 과 대	4 13(화) 본고	문과, 이과대	4 23(금) 219연대
사 회 대	4 22(목) 219연대	사 법 대	4 16(금) 본고
농 과 대	4 15(목) 본고	대 학 원	4 16(금) 본고
논 과 대	4 26(월) 219연대	교 직 원	4 27(화) 219연대

각계 관료임원 교육일정 및 장소변동 불가
- 4 교육장소
 - 가 본고(중앙관) 개별 도학
 - 나 219연대(노고산에 있는 중로, 중구 예비군훈련장)
 - 1) 구과별 전철역에서 시내버스 156번 복원산성 경유 송추행 탑승하여 20분정도 소요 (156번 산철리굴, 일명경유 차량 탑승금지)
 - 2) 구과별 전철역에서 송추쪽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대기(07 30분까지)
- 5 교육기간 08.00-17.00(07 30분 이후 도착자 대기버스 이용 불가)
- 6 복 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미착용자는 커가시킴)
- 7 휴 대 품 증명서(학생증, 주민등록증, 필기부) 및 소지자는 커가시킴
- 8 유의사항
 - 가. 훈련기간 중 국가고시, 입원, 전체지변(불의사고)발생 시 즉시 관계서류 제출
 - 나. 93년 2월에 졸업(수료), 휴학자는 교육일에도 무효처리됨으로 교육소집 통지서 즉시 반납 요망
 - 다. 동원지연으로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즉시 비상계획과로 연락 요망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현곡학술상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개교 87주년을 맞이하여 경상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곡학술상'을 제정, 다음과 같이 학술논문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1. 논문분야 경상계통(각 학과 전공별)
2. 용모저격 서울캠퍼스 경상계열 재학생(학부)
3.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PC프린트도 가능함)
4. 시상내용 가. 본상(1명) ...상장 및 상금(오십만원) 나. 가작(2명) ...상장 및 상금(각 삼십만원)
5. 논문마감 1993년 4월 30일
6. 논문제출처 경상대학 교학과(TEL. 260-3302)
7. 시상일 1993년 5월 8일(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대학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경 상 대 학 장

공 고

'93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아 래

1. 지원서접수기간 93.3.22(월)~3.24(수)
2. 접수처 학적과
3. 지원자격
 - 가. '94년 2월 졸업대상자
 - 나. 전공과정 이수시 매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90년 이전), 18학점('91년 이후, '93-1학기 포함)이상 이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4학년 2학기는 제외함)
4.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이수지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교 무 처 장

학교채권증서 교부안내

동국대학교 발행 학교채권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아 래

1. 대상자 학교채권매입 신입생(대학 및 대학원)
2. 교부장소 (서울캠퍼스) 소속대학 교학과 및 대학원 교학부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
3. 지침들 학교채권매입 영수증, 도장,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기획과,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획조정실 기획과(전화 . 260-3019, 3020)

기획홍보과 (전화 770-2019)

기획조정실장

공군사관후보 장학생모집

당 공군에서 93년도 공군 사관 후보 장학생(조종요원)모집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93년도 공군 사관 후보 장학생(조종요원)모집 계획

- 1)모집정원 00명
- 2)모집분야 조종요원
- 3)지원자격. 신체건강한 자로 본고 2학년 재학생
- 4)구비서류 : 지원서(1통), 서약서(1통), 학교 성적증명서(1통), 학교장추천서(1통), 사진 3장(3cm)
- 5)지원서 교부 및 접수 1993.3.8~3.24 서울지방방무청 공군 모병관실
- 6)복무기간 조종분야 10년
- 7)특전 : 장학금 2,221,000원 3회지급
출입과 동시에 공군 소위 임관
월보수 : 1,181,000원
10년 복무후 할 아시아나 조종사 추천
- 8)기타문의 서울지방방무청 모병관리실(756-6551)공군본부 인사참모부

* 서울(02)506-1241 *대전(042)552-1214

서울지방방무청

올 2학기부터 학사제적생 속출할 듯

학칙 개정 이후 연속2회 학사경고자 36명 교수·학생 면담 통한 구제방안 검토돼야

서강대 12명, 숭실대 26명 제적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 부활했던 학사제적제도의 첫 적용사례가 속출했다. 서강대 등에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숭실대의 경우 지난 91년 본교와 함께 개정승인을 받았던 학칙정규 15이민의 경우 학사경고장이 발부되며 연속2회, 통산3회를 받은 92학번이상의 신

입생에게 적용시 자동 제적처리된다는 학사방침에 따라 92학번 26명을 대량 학사제적처리했다.

또한 서강대는 제적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제적경고제를 두고 있으나 92년 2학기에 12명의 학생을 제적처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본교의 경우 92년 9월 개정된 학사제적규정에 따라 평점

1.5미만 12학점 미만시 학사경고장이 이뤄지며 학사경고 연속3회, 통산4회시 92학번부터는 제적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2학번 재학생 중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총36명으로 나타났다. 93학년도 1학기 이후 첫 학사제적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칙과는 학사경고를 연속2회 받은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통해 경고문을 보내는 등 학생보호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본교와 마찬가지로 학사제적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한양대의 경우 평점1.5미만일 때 첫 번째 경고조치와 두 번째일 때는 해당 학생과 부모, 교수등과의 3자면담을 통해 3회경고시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 본교도 시급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주 자연과학관 운영계획 설명회 절대공간 부족—각과 수용여부 검토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완공을 앞두고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은 "이 지리는 각 학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자연과학관 완공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수근 사무처장은 "이 계획은 아직 결렬된 사항이 아니며 다른 학교도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각 학과의 의견수렴 이후 자연과학관 운영 방침에 최대한 반영할 의사를 밝혔다.

자연과학관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1층-생물학과, 산업안전공학과 △2층-화학과, 가정교육학과 △3층-생물학과 △4층-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수학교육학과 △5층-조경학과 등이다.

학교측이 설명한 자연과학관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1층-생물학과, 산업안전공학과 △2층-화학과, 가정교육학과 △3층-생물학과 △4층-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수학교육학과 △5층-조경학과 등이다.

하지만 자연과학관이 자연대 모든 학과를 수용하는 데에는 절대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대폭적인 수정작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주 구내식비 평균 13.3% 인상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을 비롯한 구내식당 식비가 평균 13.3% 인상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이 번 식비인상은 3월 초 업무추진에 학생복지위원회 및 관과 복지계에 식비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두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일 최종 합의됐다.

지역개발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93학년도 신입생 환영회를 오늘(17일) 오후6시 코오롬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환영회는 신입생 학생회 간부 임명패 수여, 대학원장 격려사, 입학기념품 전달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학기 지역개발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93명이다.

경주 외국어교육원 LAB실 개방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원장=소명희·영문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LAB실을 개방한다.



전충련 소속 학생 2천여명이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TS훈련 즉각 중단 결의하고 있다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 열려 국보법등 반민주악법 폐지 요구

3·6석방장 환영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문익환 목사, 이수호(전 전교조 부위원장)씨등 석방인사 50여명과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3시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민주주의민중동맹 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협의회 등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는 환영사, 석방인사 인사말, 투쟁보고, 투쟁결의 등을 낭독 순서로 이뤄졌다.

환영사로 나온 권준희(전국연합 상임의장)씨는 "육중에서 한 걸음이 투쟁하신 여러분들의 석방을 최대한의 경위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우리 힘으로 육문을 활짝 열지 못한 것은, 통분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인사 말을 통해 문익환 목사는 "이번 환영을 해주고 고마우며 평양에서 하루하루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이런 환영회가 이뤄지길 원하며"

전충련(건) TS훈련 중단 촉구 대국민 선전전·서명운동등 대중적 전개 결의

TS훈련 즉각 중지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것 △TS훈련 저지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한 조선학생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 이후 범학원연합회로 배반관, UN, 세계평화운동단체등에 보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와함께 전충련은 "남한당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핵무기 개발의도로 간주하며 미국의 강압조치에 종속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민족적 입장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자주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또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스타미대사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

사과대 신입생 '새날학교' 개최 생활공동체 함양 계기 될 듯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이문환·사회4)는 오는 22일부터 4월 마지막주까지 제1회 신입생 '새날학교'를 동국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입생 '새날 학교'는, 최근 실시된 신입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신입생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나눠 분반형식의 토론회를 기획했으며 컴퓨터, 레포트 작성법등 일반 대학문화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학생회장 이문환은 "본 신입생 '새날 학교

연극평
사라의 법정

외설시비... 토론형식으로 관객판단 유도

서울의 하늘

서기영

(전 본교 법정비 교수)

법정극은 어떤 형태의 범죄를 사안으로 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 진실을 밝히려는 진과정을 극화한 것이다. 이와같은 법정극은 일반 연극의 기본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극작가들은 즐겨 자신의 회고록 체를 또는 일부를 법정극의 형식을 취해 창작한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예로 윤대성의 '신화 1900'의 진체가 법정극의 형식이었고 브레히트의 '사건의 백묵' 중 일부인 극중극 장면이 그것이었다. 또한 법정극

'음란문서 제조 혐의'라는 검찰의 수사방식에 의해 전격 구속된다. "정육은 종족번식의 기능이자 생리변화라는 것은 인정하겠소. 그런데 그것이 국민소득 1만 달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며 음란하고 퇴폐적인 글로써 국민의 정서를 해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검찰의 논조에 대해 '검사님도 서침에 한번 가보세요. 내 작품이 음란에 관한 한 얼마나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피

나는 격렬한 투쟁의 양상으로 재판은 종결되고 다시 죄수복을 입은 사라가 등장 "그 다음부터 나는 이상한 행동만 하구 싶어졌어요. 시시한 것이 싫어졌거든요. 좀더 자극적인걸 원했어요"라는 자신의 성욕에 대한 솔직한 진술과 이를 계속 추궁하며 결국은 사라의 모든 것을 벗겨 버리는 재판장이 눈에 띈다.

클리어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어때요. 나의 모든 것을 벗겨버렸기니까 재미있나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



○사라, 교수 재판관 이들은 바로 나 자신을 비롯한 현대인의 모습을 대표한다.

행동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나의 성(誠)을 형성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막상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잘해야지 마음먹고 있는 동안, 신선한 아이덴티티와 편견의 다양을 준비하는 동기와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나 자신부터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도해본다. 수습을 때는 즉시 수습을 맞이하게 될 요즘의 나는 어느 다른 동기보다도 더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한다. 나 자신이 느꼈던 한계점, 취약점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기며, '일취월장', '용왕매진'의 개념을 실현에 옮기는 일이 절실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새봄, 가을, 여름, 겨울 푸르고 아름다운 서울하늘 그리운 옛집, 밤 하늘에 슬픔, 기쁨, 세월의 쇠앗 밝고 맑은 별들 되어 우리 집 그 하늘에 오늘도 반짝이네

세월따라 성장한, 종로 너거리 젊은이들, 오고가는 사람물결 높은 건물, 그 많은 자동차행렬 크게 변화했어도 종각 먼 옛날 인경 소리, 늙은이 가슴속에 지금도 울려오네

람골공원에 큰, 돌기둥이 등위에 울려 있는 비석이 사리진 어린날 이련한 꿈 지나간 세월처럼 의리도 금이 갔네

三·一 독립만세 우렁찬 역사의 함성소리 깊게 깊게 조각되어 파고다의 높은 탑 찬란한 우리지배 높고, 밝은 빛 나와 나와 함께, 영원하리

쉬지 않고 흐르는 깊고, 푸른 한강물 울푸른, 남산 위에 끝없이 드높은, 서울하늘 함께 살이온 우리 한평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거울

북악산 아래, 우아한 경복궁 경회루 영쪽에 흐르는 평화로 사랑하든, 역사의 그림자 새날의 뜨거운 태양이 힘찬 조국 앞날, 햇빛되어 푸른 서울 하늘 높이 떠오르네

해설 윤해로써 79세를 맞는 서기영 전 법정대 교수의 투고시를 실는다. 서교수는 이 시 한편이 인생의 황혼기에 쓰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축도라고 밝혔다.

서울하늘 아래서 80년, 그중 본교에 몸담은 해가 46년이나 된다는 서교수는 퇴임한 이후에도 늘상 본교에 빛진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다고 전한다. 그 마진한 아쉬움을 담은 이 시는 종로거리, 파고다공원, 남산 등 서울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잘게 잘려 있다.

건강이 약화되어 몸이 의욕을 따르지 못해 안타깝다는 서교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약력하는 결단을 버리지 않는다. 한 노교수의 오랜 인생경험과 추억이 배어있는 시 한편을 이 새봄에 권한다.

법정극의 묘미 최대한 살려

은 영화에서도 자주 차용되는 형식으로써 나는 살고 싶다는 감동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정극의 극적 특성을 사용하여 실존 '성공회'와 '성의식' '성'의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연극이 바로 '사라의 법정'이다.

딱이 오르면서 주인공 사라는 요즘 유행하는 춤과 함께 성적 충동을 자아내는 신장적 율동을 보여준다.

이렇듯 신장하면서 밤늦게까지 집필을 하던 현직 김광수 교수는 이틀남

고, "좋습니다. 성행위에 관해 몇몇 이지의 할애하지 않더라도 원고지 한 장에다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었다. 그리고 나란히 누웠다. 방을 나왔다. 재판장님! 이렇게 원고지 한 장으로 줄인 내용을 읽고 재판장님은 뭘이 모르면서 주인공 사라는 요즘 유행하는 춤과 함께 성적 충동을 자아내는 신장적 율동을 보여준다."

이렇듯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갈등하고 절제적인 서적이 부딪쳐 일어

으며 즐기는 이상한 취미가 있어... "라는 사라의 내레이터로 극은 막을 내린다.

두시간 가까이 극에 몰두하여 나의 감정을 있는대로 뒤늦게 놓은 연극 '사라의 법정'은 그야말로 법정극의 묘미를 백퍼센트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서의 변호사는 아마도 어두운 방 안에서 빛가빔을 누워있는 나 자신을, 검사는 이러한 나 자신을 감수기 위해 옷을 꺼내고 가식과 과장된

박종운
(이과대 물리학과·극예술연구회장)



공연 안내

○연결조선족 예술단 초청공연... 중국 전역 순회공연을 비롯해 러시아·독일·알제리 등 세계 곳곳을 돌며 조선족의 전통 민속문화를 소개한 이 예술단은 부채춤·칼춤 등의 무용과 꽃타령·방아타령 등 창작민요를 선보인다. 오는 20, 21일 양일간 오후 7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

새로 나온 책

○소설 장보고... 문화부가 3월의 인물로 지정한 문화인물 장보고가 3권으로 출간됐다. 통일신라시대 동방 해상무역의 영웅인 장보고의 업적에 비해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면이 있는 그의 활약을 재조명해주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허구의 조화가 장보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것이다. (대한·각권 4천 5백원)



강판식 기자

동기들의 탈수습기에 대한 뿌리움이 지금 나 자신이 탈수습기를 쓰는 이 시절에서는 오히려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주는 건 무슨 까닭일까. 그렇게도 힘들고 고달프다고 들어왔던 신문사의 일에 대한 것 인상은

겨우 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할 만큼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들이 바빠 진행되는 신문사 일정에 차츰 매몰되어가면서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나는 식의 사고가

탈수습기 '일취월장' 실행에 옮길 터

나의 두뇌를 지배하게 되었다. 즐겨 쓰고 즐겨 부르던 삶의 방식과 노래들은 바뀌진 형태로의 더 나은 모습대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느끼게 해 주는데 하나도 손색이 없다.

입사시절에 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적어놓았던 몇몇의 답들, 그리고 난

후 자신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하로 여겨질때 느꼈던 허무감... 면접 후의 합격 발표 등등, 수많은 과거의 사건이 머리 가득 메운다. 처음 출입처를 배정받았을 때의 어

는 독자들에게 두루 읽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글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잘해야지 마음먹고 있는 동안, 신선한 아이덴티티와 편견의 다양을 준비하는 동기와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나 자신부터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도해본다. 수습을 때는 즉시 수습을 맞이하게 될 요즘의 나는 어느 다른 동기보다도 더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한다. 나 자신이 느꼈던 한계점, 취약점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기며, '일취월장', '용왕매진'의 개념을 실현에 옮기는 일이 절실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아마도 거짓일테고 내가 느끼기엔 '열심히' 라는 단어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았나 같이 생각한다. 한번 한번 신문은 펴볼때, 단지 신문을 펴었다는 업적위주의 느낌보다

해설 윤해로써 79세를 맞는 서기영 전 법정대 교수의 투고시를 실는다. 서교수는 이 시 한편이 인생의 황혼기에 쓰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축도라고 밝혔다.

서울하늘 아래서 80년, 그중 본교에 몸담은 해가 46년이나 된다는 서교수는 퇴임한 이후에도 늘상 본교에 빛진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다고 전한다. 그 마진한 아쉬움을 담은 이 시는 종로거리, 파고다공원, 남산 등 서울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잘게 잘려 있다.

건강이 약화되어 몸이 의욕을 따르지 못해 안타깝다는 서교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약력하는 결단을 버리지 않는다. 한 노교수의 오랜 인생경험과 추억이 배어있는 시 한편을 이 새봄에 권한다.

페이커리

▲법정·노년의 '무소유'나 언어망의 수필 '생각의 변'을 보면 생활 속의 또다른 면을 보는 필자의 식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신세대 감각으로 신세대의 문화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작품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사교의 자연스러움과 심상의 풍성함을 이 책은 주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실재를 폭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자하기 보다 알려진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파편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도 현대를 사는 생활인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요즘처럼 'post'란 접두사가 유행하는 시대도 드물 것이다. 흔히 후기산업화 사회의 징후로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해체개념,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미래, 또는 현실극복의 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력들을 보여 법정노년과 언어망

생활의 발견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비판적 기능과 사상의 자유가 풍부하다는 젊은 지식인들의 눈은 또 어떤가. 몇권의 책, 흘러들은 몇가지 얘기들로 사회를 규정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계를 재단하려 하는 경향은 없는가. 생활속에서 자기의 파편을 발견하기에 앞서 몇권의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생활을 재단하고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는 거대한 '사상누각'에 내가 서있는 것은 아닌가. 진보의 편에서 보수를 비판하면서도 지극히 보수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그러한 반성, 혹은 자기진단들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생활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가장 보수적인 삶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가장 진보적이라는 삶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상을 찾는 것,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발견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법정노년과 언어망은 바로 보수적인 생활에서 진보적인 것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현대 도시인에게 부단히 읽히는 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련의 'post' 개념도 아니고 새로운 모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진보와 보수의 시대에 자기 자신의 진보와 보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문과대 특목과)



최경인 (16)



— 공부하는 직장인 —

아빠는 몇 학년?

"아빠는 몇 학년이야?" 국민학교 1학년 짜리 우리 집 꼬맹이가 가끔 묻는 말입니다. 퇴근 후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있는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꽤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나날이 변모해가는 사회·경제환경에 미리 대처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제 자신은 하루가 새롭고 매사에 의욕이 생깁니다.

21세기의 문턱 - 눈 앞에 열리는 새로운 시대 - 지금, 새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입니다.

저희 동부그룹은 창업초기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선진화에 기여함을 기쁨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시대에도 저희 모두는 공부하는 자세로 저마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산업부문: ■ 동부산업 ■ 동부제강 ■ 동부화학 ■ 동부건설 ■ 동부고속 ■ 동부엔지니어링 ■ 금융·보험부문: ■ 한국자동차보험 ■ 동부에트나생명보험 ■ 동부증권 ■ 동부상호신용금고 ■ 동부창업투자

